

평가는 인민들에게서

몇해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궤도전차의 시운전길에 몸소 오르시였다.

이날 궤도전차의 고르로운 동음을 한참동안이나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궤도전차를 잘 만들었다고, 보람이 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.

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하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도안대로 만들었기때문에 잘 만들수 있었다고 말씀 올리였을 때였다.

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궤도전차를 만든것은 우리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피타는 노력으로 새형의 궤도전차를 잘 만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. 그러시면서 새형의 궤도전차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게서 받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.

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강조하시였다.